

“구성진 화음 울려퍼지는 재래시장”

여수 교동시장 새 브랜드 된 ‘동백아가씨 합창단’

상인들 22명 결성, 침체 깨고 ‘활력’

노래봉사·세계박람회 홍보 등 유명세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학마다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설움 혼자 지난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면 어김 없이 여수 교동시장에는 이미지의 ‘여자의 일생’이 펼쳐진다.

상인들이 일손을 잡시 놓고 노래 연습을 하기 때문이다. 장화를 신고, 앞치마도 그대로 두른 채 노래에 빠지다 보면 어느새 눈물바다가 되고 만다.

지난해 5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프로그램 일환으로 시작된 ‘옛날 노래 배우기’는 이제 어엿한 합창 단을 출발할 정도로 성장해 시장의 명물이 됐다. 모두가 음자라는 생각에 망설임 끝에 시작했지만 출연료를 받고 노래를 할 정도로 실력을 갖췄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사)커뮤니티자인연구소 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름없는 무명상인이 공적 주체로 성장”한 셈이다.

50~60대 상인 22명으로 지난해 10월 창단한 ‘동백아가씨 합창단’은 거북선축제, 화양면 축제는 물론 노인 무료 음식점에서도 나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 손수제작물(UCC)에도 등장할 예정이다.

현재 재래시장내 상인 합창단은 동백아가씨 합창단과 수원시 뜬꽃 시장의 불령합창단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창단 회장을 맡고 있는 한영이 (64)씨는 “합창연습을 하면서 상인들의 얼굴이 밝아졌다”며 “수십 년

장을 하면서 서로 모르고 지낸 상인이 대부분이었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가까워지고 손님들에게 더 친절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교동시장 상인회 훈련식에서는 합창이 시작되자 모두 눈물바다가 됐다.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일하면서 겪은 애환의 노래로

표출되자 수백 명의 상인들이 복받쳐 오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노래 배우기는 쉽지 않았다. 남편들이 “일은 안 하고 뭔 놈의 노래질 이냐?”며 구박하기가 일쑤였고, 노래배우다 남편에게 들으면 도망 다니다 끌려 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은 물론 자식들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 노래가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다

고 한다.

합창단에서 가장 고령인 전정희 (68)씨는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니 한글도 못 익히 항상 배움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노래를 배우면서 평생 맛한 힘을 푸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풀었다.

노래를 배우면서 자신감을 가진 상인들은 이제 상가 일에도 적극적

이다. 상가발전을 위한 토론회에도 상가 주체로 당당히 참가해 발언하고 논쟁한다. 이런 모습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단순히 장사만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상가 주인으로 변화한 것이다.

‘동백아가씨 합창단’은 이달 말 이번 지원사업이 끝난다. 그래서 합창단은 ‘여수의 부엌’이라는 브랜드로 수익사업을 펼쳐 합창단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류재홍 합창단장은 “상인들이 옛날 노래를 배우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이제 이 합창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해양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

여수 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여수시 중흥동 광양항 중흥부두 앞에서 ‘위험·유해물질 유출사고 대비 민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여수 지방해양항만청, 여수소방서 등 15개 기관·단체와 선박 22척, 소방치량 5대, 제독설비, 각종 방제장비 등이 동원됐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여수시 중흥동 광양항 중흥부두 앞에서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예년에 비해 겨울과 봄이 춥고 습했던 최근 2~3년간 이탈리아에서는 키위 케이블에 의해 수백㏊에 이르는 키위 과수원이 폐원에 이르렀다. 또 지난해 겨울부터 비슷한 기상이면

을 겪은 뉴질랜드 전역에서도 키위 케이블이 발생해 키위 사업이 존폐위기

기에 처해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순천대 참다래 질병치료 기술 해외로

뉴질랜드 이어 이탈리아에도 방제법 전파

순천대학교가 참다래(키위)의 독보적인 질병치료 기술을 뉴질랜드와 이탈리아 등에 전파한다.

순천대 생명산업과학대학(학장 고영진)은 지난 4월 뉴질랜드에 이어 5월 이탈리아 등 외국 연구기관과 ‘키위 케이블’은 전염성이 강한 세균에 의해 발생하며, 위케이거나 심이지장케이 증상처럼 줄기에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 키위나무를 급속하게

지리산·섬진강의 아름다움 찰칵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소장 김진광)는 지리산(노고단)과 섬진강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생태·문화 연결고리 확보의 일환으로 ‘제1회 지리산·섬진강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지리산 노고단과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경 및 자연, 문화, 추억,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다.

출품사진은 다음달 7월 15일까지 ‘지리산·섬진강 블로그(blog.daum.net/jsgg)’를 통해 접수한다.

사진크기 해상도는 1024×

768 ~ 1280×960을 권장하며,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8월

초 단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내역은 대상(상금 50만원), 금상 2점(상금 20만원), 은상

내달 1일부터
사진 콘테스트

4점(10만원), 동상 6점, 장려상 20점을 선별한다. 이번 콘테스트 수상작품은 하반기 액자로 제작해 노고단 노고할매 탐방안내소에 전시할 예정이다.

김진광 소장은 “지리산·섬진강 자연문화 연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여수에 간호학과 신설 될 듯

김성곤의원 등 각계 요청에 교과부 긍정 검토

한영대학 보건 계열 특화… 이달말 결정 관심

여수지역 병·의원들과 교육계 등 74개 기관이 정부에 요청한 간호학과 신설요청(광주일보 4월 25일 10면)에 과란불이 겨웠다.

민주당 김성곤의원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2012년 여수엑스포관련 국비지원 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각 부처를 돌며 장·차관과 실무자들을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김의원은 교육부를 방문해 실무자들을 면담하고 여수지역 간호학과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보건

고, 지역 환자들이 수십년 동안 광주 등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병·의원과 관련기관, 여수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영길 전남병원장은 “간호학과가

신설되면 간호학과 학생 실습병원으로 인가받은 우리 병원에서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며 “간호학과 신설이 확정되면 병원 증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

며 “그동안 다른 사안에 밀려 가장 시급한 문제인 간호학과 신설이 외면당 해온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계, 시민단체, 의료계를 포함한 여수시민 모두가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여수 한영대학도 간호학과 신설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갖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원장은 또 “저소득층 환자들은 그동안 어려운 형편에도 치료를 위해 대도시 병원으로 가야하는 이중고를 겪어 왔다”며 “이번 여수지역 간호학과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 저소득층 환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여수병원의 질도 높여 지역민에게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지역 간호학과 신설에 가장 중요한 고비인 간호학과 정원장은 이달 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된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8개>

사건번호	매각 물건	감정평가액	비고
물건 번호	소 재 지 및 면적 [㎡]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2010타경 45003	1 동구 산수동 568-1 두암타운 109동 9층 905호 94.58㎡	아파트 135,000,000 원차입있음 135,000,000	
2011타경 1413	1 광산구 운남동 771-1 운남주공4단지아파트 411동 2층 201호 58.14㎡	아파트 60,000,000 원차입있음 60,000,000	
2011타경 1802	1 북구 문암동 110-11 101동 5층 503호 140.80㎡	아파트 180,000,000 원차입있음 180,000,000	
2011타경 1949	1 북구 신동동 643-1 풍우주공아파트 104동 20층 201호 59.99㎡ [토지별도기여있음]	아파트 73,000,000 원차입있음 73,000,000	
2011타경 2379	1 광신구 월계동 758-2 청단지구상용아파트 104동 5층 504호 84.99㎡	아파트 90,000,000 원차입있음 90,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1타경 748	1 광성구 일면 재월리 159-1 57.57㎡ 부속건물 청고13.44㎡ 제시외 가주 등 15.225㎡ [인근지역 분양1호인 1전부]	단독주택 2,701,820 원차입있음 2,701,820	공유자수변경승인권 청고재화현
2011타경 1277	1 북구 풍동 553-1 64.46㎡ 외2층43.63㎡ 부속건물 청고15.16㎡ [인근지역 분양1호인 1전부]	단독주택 98,103,590 원차입있음 98,103,590	공유자수변경승인권 청고재화현

[대지·임야/전·전기]

2010타경 34362	1 서구 융동 43 734㎡	전 25,690,000 원차입있음 25,690,000	농지취득자증명영 25,690,000
2011타경 10882	2 북구 풍동 68 95.1㎡	대 76,080,000 원차입있음 76,080,000	농지취득자증명영 76,080,000
2011타경 10899 [총부]	3 북구 금곡동 238-1 205㎡ [공유자분양남자 1전부]	대 4,654,000 원차입있음 4,654,000	농지취득자증명영 4,654,000
2011타경 229	1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800-3 1847㎡	답 68,339,000 원차입있음 68,339,000	농지취득자증명영 68,339,000
2011타경 632	1 광산구 명화동 231 159㎡	전 15,741,000 원차입있음 15,741,000	농지취득자증명영 15,741,000
2011타경 861	1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821-6 129㎡	답 1,419,000 원차입있음 1,419,000	농지취득자증명